

Drupa 2012를 혼자 가보기 “인쇄인이라면 잊을 수 없는 감동받을 것”



기고 | 김현(두산동아·인쇄명장)



인쇄인이라면 한번쯤 가 보고 싶은 독일 인쇄전시회인 Drupa(드루파) 2012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드루파2012는 5월 3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이다. 첫날은 관계자만이 입장이 가능하고, 둘째 날부터 일반 관람객이 입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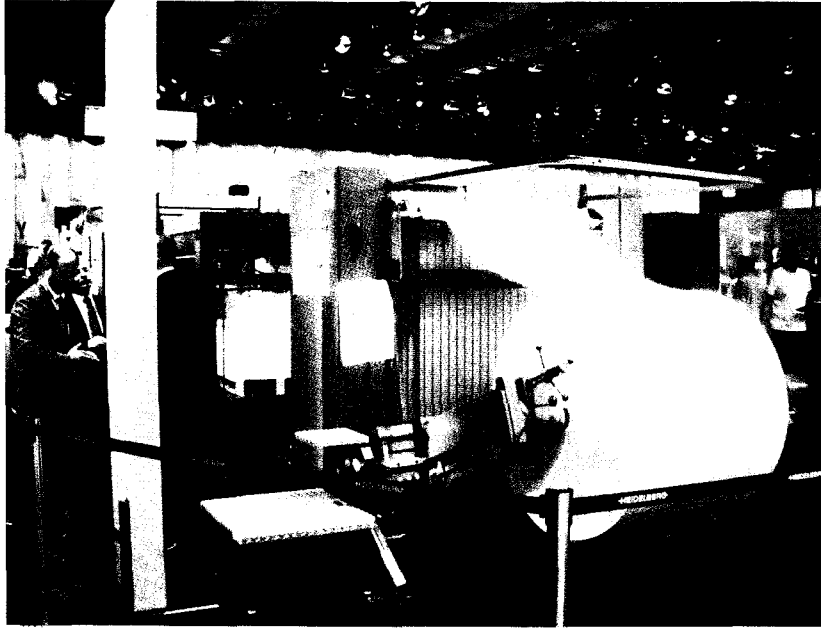
나는 3년 전 드루파를 눈으로 직접 본 감격은 너무나 컸기에 앞으로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엄청나게 큰 전시장과 많은 기계들 그리고 앞서 가는 기술과 기계, 시장 규모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소개 되지 않은 기계들 때문이다.

나는 2007년 일본 IGAS, 2008년 독일 Drupa를 보고 싶은 마음에 개인적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다녀왔다. 내 나이 30대 후반부터 꾸준히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운이 없어서인지 결국 내 돈으로 다녀 오게 된다. 나이로 봐서, 기회가 올 것 같지도 않고, 눈물을 머금고 경비를 아껴 가며 다녀왔다.

우리나라 인쇄전시회를 생각하고, 2007년에 일본에서 열린 IGAS를 한번 가보았다. IGAS의 전시 면적은 우리나라의 4배 정도지만, 전시 내용은 10배 정도 알찼다. 거기서 깜짝 놀라 드루파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2008년 없는 경비를 절약해서 가 보았다. 전시회 규모로는 일본 전시회의 10배지만 내용은 그보다 더 실속있어 100배 정도는 됐다고 느꼈다.

나이로 봐 현직에서 도움이 된다면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무리 해서 다녀왔다.

독일 드루파 전시회하면 우선 경비를 생각해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열정이 있다면 개인 경비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날장, 두루마리 검용기

유럽은 예약문화다. 무엇이든 예약할 수 있으면 싸게 살 수 있다. 현지에 가서 구입하는 것보다 미리 예약 해놓고 구입하는 것이 훨씬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예약하지 않고 현지에서 표를 구입 하거나 호텔을 예약하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00%까지 더 경비가 들 수 있다. 공식적인 차비나 호텔비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예약이나 현지에 가서 사는 거나 차이가 없지만 유럽은 다르다. 예약은 민박집 주인을 통해서 하면 된다.

항공료부터 한가지씩 살펴보자. 우리나라 국적기를 타면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것을 타거나 파리나 런던 그리고 암스테르담을 거쳐 가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국적기는 비싸다. 보통 왕복 항공권이 160만원 정도 들게 된다. 부담이 되는 돈이다. 그렇지만 할인 항공권을 이용하면 뒤셀도르프까지 120만원이면 가능하다. (암스테르담까지는 더 싸다. 개인으로 육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뒤셀도르프 가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암스테르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뒤셀도르프까지 가는 것을 샀다.) 내가 간 코스는 네델란드 항공을 이용해서 암스테르담(스키폴 공항)으로 가서 경비행기로 갈아 타고, 뒤셀도르프로 갔다. 올 때는 반대로 뒤셀도르프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암스테르담에서 서울로 오는 네델란드 항공을 탔다. 예약하는 일자가 빠르면 더 싸게 가는 항공권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숙박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선수금 3만원(예약해 놓고 안 오는 손님이 있어 받는다고 한다)에 1박당 시내는 70유로, 시외는 40유로라고 나와 있다.

식사는 아침은 민박집에서 같이 하고, 점심과 저녁은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독일에서 먹는 것은 굉장히 비싸다. 김치찌개 한끼에 우리 돈 3만원 정도다.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경비를 절약하는 길이다. 나의 경우 빵을 좋아해 거의 빵으로 해결하고, 이틀에 한번(4끼에 한번)만 한식을 먹었다.

시내 교통편 이용은 드루파 입장권으로 대신한다. 지하철이나 버스는 입장권만 있으면 뒤셀도르프 도심권을 다니다 불편이 없다. 훨씬 정도 가게 되면 표를 사야 하지만 시내권은 입장권으로 대신한다.

뒤셀도르프 시는 작은 편으로 걸어 다녀도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드루파 입장권은 우리나라 참가업체나 기계상 또는 오퍼상에서 구하고, 그래도 못 구했으면 라인메세(전 시장 관리 업체) 한국대리점에서 구입한다. 현지에서 구입하면 50% 정도 더 주고 입장권을 사야 하므로 반드시 2달 전까지 구하지 못했으면 라인메세 한국대리점에서 구입해서 가기 바란다. 라인메세 한국 인터넷 주소는(jikim@rmesse.co.kr)에서 예매해서 가져가기 바란다. 2008년의 경우 인터넷에서는 19만5천 원이었지만 현지에서는 30만원 가까이 된 것으로 기억한다.



드루파 전시회장

나의 경우 출발하기 전 여러 곳을 알아 봤지만 모두 알아보겠다는 대답만 돌아와 라인메세에서 구입해서 갔다.

드루파전시장(보통 현지에서는 라인메세라고 한다)의 규모는 한마디로 너무 넓어 하루 이틀에 보는 것은 무리다. 드루파 전시회는 4일 정도 보는 것으로 잡으면 될 것 같다. 처음 이틀은 전시장 모두를 대충 둘러 보고, 다음 이틀은 내가 보고 싶은 곳을 집중적으로 보면 될 것 같다.

한꺼번에 4일을 모두 본다면 지루할 것이다. 이틀 보고,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파리나 런던 또는 근처의 켈른 정도를 둘러 보고, 나머지 이틀을 보는 것이 전시회를 더 알차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나의 경우 이틀 보고 1박 2일 파리 여행을 하고, 이틀 보고 오후 비행기로 귀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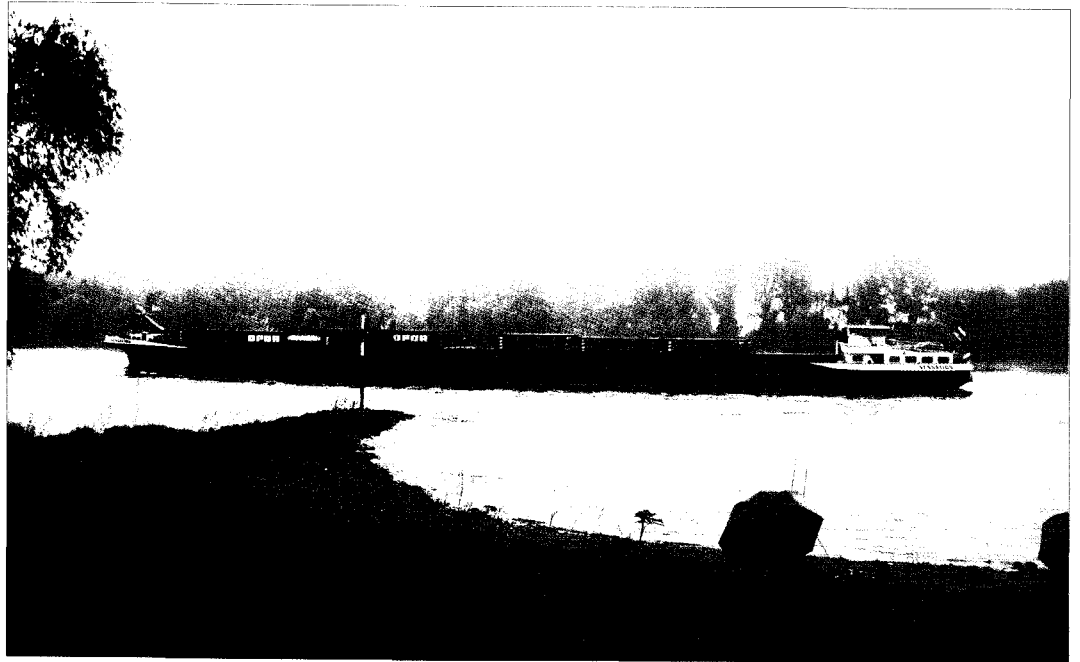
세계 각국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드루파를 보러 온다. 내가 보고 싶은 소프트웨어나 기계가 있으면 천천히 기다려 봐야 한다. 하이텔베르그나 로렌드 같은 업체들은 코엑스정도 되는 전시장을 통째로 활용하여 자사 제품들을 전시, 시연하고 있다. 내 관심분야를 찾아 가는 것은 쉽지 않다. 다른 사람도 그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보고 있는 경우가 거의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두루마리 매엽 공용기, 매엽에 라미네이팅 연결 인라인으로 조합된 기계 등이 있었다.

드루파2008에는 중국 인쇄기계들이 많이 전시되었다. 아직은 인쇄품질에서 독일이나 일본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기계를 어떻게 사용할 지 모르는 차세대 첨단정밀 기계들이 눈을 혼란하게 만든다. 출시된 모든 기계를 현실에 맞고 잘 사용할 수 있는지는 미래에 가서야 알 수 있지만 말이다.

드루파 전시장은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남은 시간은 뒤셀도르프 시내를 구경하고, 라인강변을 둘러 보면 좋을 것 같다.

전시장 바로 옆이 라인강이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뒤셀도르프 하항(우리나라 사람은 이해가 잘 안될 것 같다. 강에 있는 항구를 말한다)이 있다. 전시장 근처의 라인강은 강변이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어 낚시를 하는 사람도 있다. 강물도 거세게 흐른다.



라인강을 보고 부러워하던 것이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화물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려가고 올라 오는 것이다. 우리나라 한강은 라인강에 비하면 너무 조용한 강이다.

하항 근처에는 강변 카페가 즐비하고, 유람선을 탈 수 있는 선착장과 선상 카페도 있다.

독일 하면 맥주의 나라다. 그런데 생맥주는 없는 것 같다. 독일어나 영어로 생맥주는 무엇이라 하는가 알아보고 가서 찾기를 바란다. 라이프비어(Life Beer)는 아니다. 영어로 생맥주는 Draft Beer다. 만약에 생맥주를 찾으려면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도시의 여행정보는 민박집 주인이 가장 잘 안다. 뒤셀도르프에서 민박집 주인의 추천으로 파리에 갔고, 파리에서 시내를 여행하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민박집 주인이 말한 시간에 민박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길눈이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면...

유럽에서 교통편을 예약하면 싸게 이동할 수 있다. 바로 살 때는 비싸지만 예약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기차 여행시 갈아탈 때, 우리나라에서는 역사밖으로 나올 수 없지만 유럽에서는 시간에 맞춰 역 주변을 구경하고 다시 들어가 기차를 타면 된다. 자유롭게 역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가는 장점은 일정에 내가 하고 싶고, 보고 싶은 대로 잡는 것이고, 단점은 안내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이 어려운 점이다.

전시회를 보고 나면 앞으로 발전 방향을 조금은 알 수 있고, 인쇄의 방향을 볼 수 있다. 2008 드루파에서는 색상의 객관화(CMS)의 정착과 복합기(인쇄 + 후가공) 발전 및 중국업체들의 진출이었다.

2012년에는 또 어떤 변화된(발전) 소프트웨어나 장비가 소개될 지 궁금하다. ☺